11강. 마음의 계보학

1. 자아와 대상은 의식의 변형물일 뿐이다.

◇ 아트만(ātman)과 다르마(dharma)라는 용어들과 관련된 용례들은 다양하다. 그것들은 모두 의식의 변형들을 가리킨다. 의식의 변형은 세 층위로 일어난다. 『유식30송(Triṃśikā)』1 ◇ 세 가지 변형은 '숙성하는 의식', '사유하는 의식', 그리고 '구별하는 의식'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2-전반부

-『유식30송(Triṃśikā)』에서 바수반두는 아트만과 다르마, 즉 주체와 대상이란 구분이 기본적으로 의식의 변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유식30송』은 주체나 대상의 계보학이라고 명명될 수도 있겠다.

- '계보학(genealogy)'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다시 말해 어떤 계기들의 충돌과 접합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보학적 사유 방식은 자명하다고 긍정되는 사안을 일종의 결과로 사유한다는 점에서 해체적이며 동시에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수반두에 따르면 우리가 자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나 자각하고 있는 자아란 결국 의식 변화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바수반두의 '의식'

1)가장 심층에 있는 의식이 '숙성하는 의식'

2) '사유하는 의식',

3)가장 표층에는 '구별하는 의식'

- '숙성하는 의식'은 자체의 논리로 작동하지만, '사유하는 의식'의 토대로 기능한다.

- '사유하는 의식'도 그 자체의 논리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구별하는 의식'의 토대로 기능한다.

2. 숙성하는 의식, 혹은 알라야식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숙성하는 의식은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것은 모든 과거 경험들의 종자들을 가지고 있다.
『유식30송(Triṃśikā)』2-후반부

◇ 알라야식은 자신 안에 미지의 대상과 장소들에 대한 의식 표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항상 접촉(sparśa), 주의(manaskāra), 인식(vid), 생각(sañjñā), 의지(cetanā)와 관련되어 있다.
『유식30송(Triṃśikā)』3

◇ 알라야식의 감수작용(vedanā)은 무관심한 것이다. 이 의식은 순수하며 도덕적으로도 중립적이다. 이와 유사하게 접촉 등도 무관심하다. 알라야식은 급류의 흐름과 같다.
『유식30송(Triṃśikā)』4

◇ 알라야식은 아라한의 경지(arhattva)에 이르면 소멸된다.
『유식30송(Triṃśikā)』5-전반부

-‘숙성하는 의식’이 바로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이다.

-바수반두에게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무의식적 층위에서 저장된다는 것이다.

-알라야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대상과 장소에 대한 의식 표상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일종의 감수작용도 수행한다.

-바수반두는 ‘숙성하는 의식’ 즉 알라야식이 우리의 모든 정신적 행위와 감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수반두는 알라야식 자체를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마나스(manas)라고 불리는 의식은
알라야식에 의지하고 알라야식을 대상으로 갖는다.
마나스는 본질적으로 사유 행위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5-후반부

◇ 마나스는, 그 자체로 순수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인, 네 가지 오염물과 항상 관련되어 있다.
네 가지 오염물은 자아에 대한 믿음, 자아에 대한 무지,
자아에 대한 오만, 그리고 자아에 대한 사랑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6

◇ 마나스는 또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세계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는, 접촉 등과 같은 다른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마나스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요한 의식 상태나 세속을 떠난 길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유식30송(Triṃśikā)』7

◇ 이것이 의식의 두 번째 변형이다.『유식30송(Triṃśikā)』8-전반부

3. 사유하는 의식, 혹은 마나스

-마나스(manas)는 일종의 자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나스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말한 통각(apperception)과 유사하다.

-칸트에게서 자기의식, 즉 통각은 인식기 성립하려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나스란 알라야식에 근거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불변하는 자아라고 믿고 있는 의식이다.

-바수반두는 마나스가 “자아에 대한 믿음”, “자아에 대한 무지”, “자아에 대한 오만”, 그리고 “자아에 대한 사랑”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도 이 네 가지를 아치(我癡), 아견(我見), 아만(我慢), 아애(我愛)라고 부르면서 극히 경계하고 있다.

-알라야식이 행위 흔적이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작동하는 의식이라면, 그것을 불변하는 자아라고 믿는 것은 분명히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구별하는 의식, 혹은 나머지 여섯 가지 의식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세 번째 의식의 변형은 여섯 층위의 대상에 대한 지각과 동일한 것이다.
구별하는 의식은 성격상 선하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중립적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8-후반부

◇ 가능한 조건들에 따라 다섯 가지 감각-의식은
함께이건 아니면 단독적으로건
근본적 의식[알라야식]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마치 파도들이 물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다.
『유식30송(Triṃśikā)』15

-알라야식과 마나스를 토대로 여섯 가지의 일상적 의식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눈의 의식[眼識, cakṣur-vijñāna]', '귀의 의식[耳識, śrotra-vijñāna]', '코의 의식[鼻識, ghrāṇa-vijñāna]', '혀의 의식[舌識, jihvā-vijñāna]', '촉감의 의식[身識, kāya-vijñāna]', 그리고 '의식[意識, mano-vijñāna]'이다.

-'눈의 의식'이 시각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귀의 의식'은 청각대상, '코의 의식'은 후각대상, '혀의 의식'은 미각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은 앞의 다섯 가지 대상을 대상으로 갖거나 개념을 대상으로 갖는 것이다.

5. 모든 것은 의식의 표상일 뿐이다.

◇ 세 층위로 이루어지는 의식의 변형은
단지 주체와 대상에 대한 분별일 뿐이다.
이렇게 분별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의식의 표상일 뿐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17

◇ 의식은 모든 종자들을 포함한다.
의식의 이러저런 변형들은 종자들의 상호 영향으로 진행되며,
그 때문에 이러저러한 분별들이 발생한다.
『유식30송(Triṃśikā)』18

-바수반두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 혹은 의식을 여덟 가지 층위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눈의 의식',
둘째; '귀의 의식'
셋째; '코의 의식'
넷째; '혀의 의식'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다섯째; ‘촉감의 의식’
여섯째; ‘의식’
일곱째; ‘마나스’,
여덟째; ‘알라야식’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